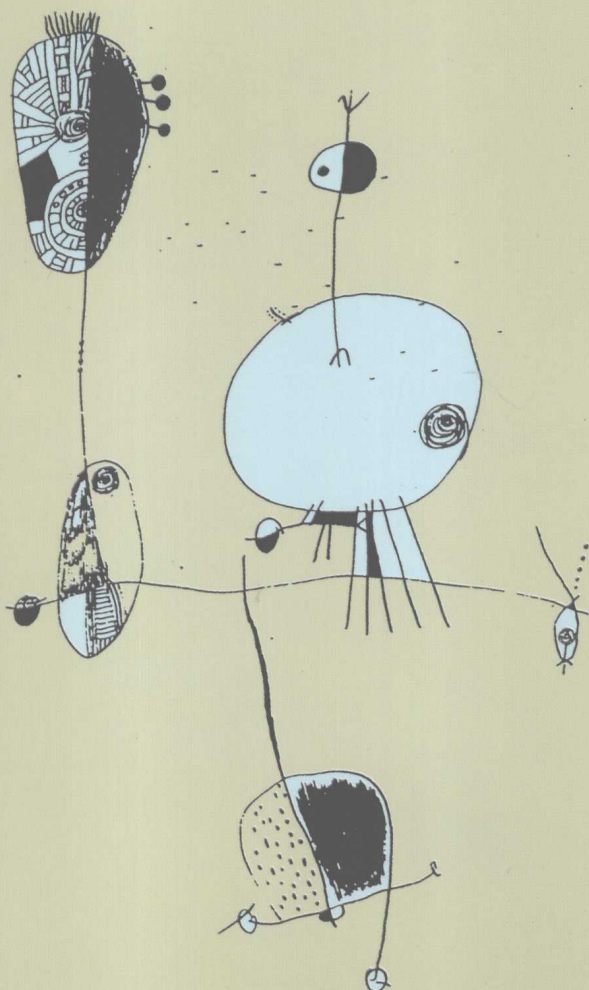


2007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진달래

허동식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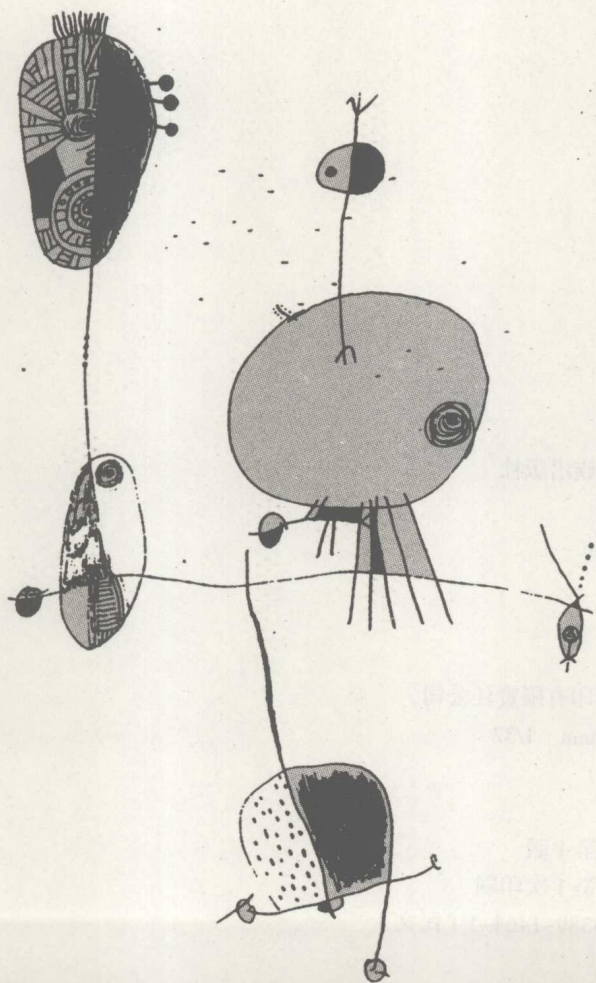


2007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진달래

허동식
저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金达莱: 朝鲜文 / 许东植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9

ISBN 978-7-5389-1464-1

I. 金… II. 许…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47315 号

书 名/ 金达莱

著 者/ 许东植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exmz@126.com

责任编辑/ 池华林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长春市时风彩印有限责任公司

开 本/ 880mm × 1230mm 1/32

印 张/ 7.25

字 数/ 200 千字

版 次/ 2007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64-1 (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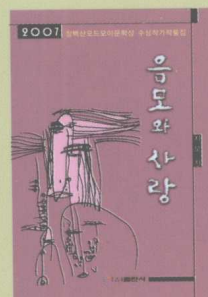
定 价/ 14.00 元



필명 허암,
1966년(음력) 길림성 화룡 출생.
1990년 북경재정무역학원 졸업.
2001년 시집 <<무색여름>>간행.
현재 란주에서 관광업 종사.



토지개혁으로부터
대약진시기의 다사다난
했던 중국조선족농촌
사회를 생동하게 그린
소설.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사회에 가져다
준 가치관의 변화와 혼
란. 금전, 음모, 타락,
사랑으로 뒤엉킨 사회
현실을 반영한 글.



조화로운 인문환경
과 파괴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갈망하는 사람
들의 마음을 그린 재미
나는 글들.



깨끗한 초탈의 이
미지, 친근감을 주는 인
간세태 및 정감의 시화,
휴머니즘이 숨쉬는 한
바구니의 향연.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집을 구축하는 일

-머리말을 대신하여

남영전

오늘을 살고있는 현대인, 날이 갈수록 정신의 공허와 령혼의 고독으로 점점 더 곤혹에 빠지는것이 현실이고 추세이다.

지나간 한세기, 인류는 자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기적을 창조한 동시에 또 너무나 많은 굴욕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공구리성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의 잠재적인 지능개발에 대성공을 거두어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을 전례없는 고봉으로 이끌었다. 인류는 생존환경과 자아개발 과정에서 또 전례없는 자유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불안과 곤혹에 몸부림치고있다. 기계와 기술에 대한 과분한 의뢰는 우리 생명의 주체성과 원창력을 상실하고있다.

때문에 20세기 인류의 이러한 실정을 고민한 대철학가들은 인류의 정신의 집을 새로 구축하는 일에 혼신을 불태웠다.

예로부터 문학작품은 지자가 신령과의 대화와 자아와의 교류에서 탄생한 숭고한 정신의 세계, 정신의 집이라 하였다. 이 정신의 집은 생명력이 강하고 감염력이 크기에 심령의 안착처이다.

지금에 와서, 정신세계가 고갈되는 현대인에게 좋은 작품 하나 선사한다는것은 말라가는 심령에 생명수 한모금 부어넣어 생명의 활력소를 환기시키는 훌륭한 작업이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광주모드모아그룹 리성일리사장과 손잡고 설립한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은 올해 제8회를 맞아 금년에 5명 수상자의 개인작품집을 합하면 지금까지 도합 43권의 작품집이 출판된다.

43권의 우수작품집, 명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규모있는 정신의 집을 구축한 셈이다.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이 8년을 견지할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리성일리사장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고 또한 심양우 성전자유한회사 황원수사장, 그리고 길림성 로동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이며 《길림신문》, 《장백산》발전연구회 회장인 신봉철선생 등 유지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먹향기 풍기는 5권의 새책을 독자들에게 선사하면서 재삼 리성일리사장, 황원수사장, 신봉철회장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이 책을 만드느라 로고가 많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여러 선생님들께도 사의를 표한다.

2007년 8월 19일

장춘에서

차 례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집을 구축하는 일 남영전/1

제1부 밤은 고요히 흘러가는데

- 밤은 고요히 흘러가는데/3
- 비가 내리는 밤이면/4
- 그리운 사람/6
- 밤의 풍경/7
- 겨울밤, 고향에서/9
- 꽃을 사던 밤/11
- 밤의 발견/13
- 밤속의 공포/15
- 정전일기/16
- 서울 밤/18
- 고향행 밤차에서/19
- 돈황 명사산의 밤/21
- 아직 밤이 다 가기전에/23
- 그물/25

네가 그림기때문이다/27

악몽/28

벽/30

밤, 교외에서/32

제2부 풍경은 흐른다

다시 청해호에/35

도기와 청동기/38

당나라 측백나무/40

대련 바다가에서/41

아미산/43

황토고원의 봄/44

황토고원의 가을/45

국경선에서/47

장춘 위만황궁에서/49

할빈 빙등/51

겨울, 송화강변의 수양버들/53

연길/54

훈춘/55

서울에서의 하루/56

서울 지하철에서/57

장강삼협에서/58

한나라 장성 유적에서/59
천산 천지에서/60
폭포앞에서/61
미이라/62
투루판 교하고성에서/63
부다라궁에서/64
향향 경마장에서/65
서안 비림(碑林)에서/67
초몰랑마봉/68

제3부 올해의 봄

올해의 봄/73
지평선/75
창턱에 놓인 꽃/76
아침, 지도앞에서/78
수련 1/79
수련 2/80
가을장마/82
바람의 의미/84
나팔꽃/86
나에게는 이런 시각이 있다/88
평화비둘기/90

유전과 변이/92
크리스마스/94
친구에게/95
슬픈 날의 일기/96
마취의 예술/97
수리공사/99
아카시아 사연/101
적(寂)의 이야기/104

제4부 겨울의 아카시아

북상 1/109
북상 2/110
가을편지/112
방에서 가꾸는 도/113
물가에서/115
무제/116
천수관음상앞에서/117
그림/118
너에게/120
나를 부르던 소리/121
겨울의 아카시아 1/123
겨울의 아카시아 2/125

겨울의 아카시아 3/127

겨울의 아카시아 4/128

겨울의 아카시아 5/129

겨울의 아카시아 6/131

겨울의 아카시아 7/132

겨울의 아카시아 8/134

겨울의 별/135

금이 실린 도기/137

환상/139

제5부 도시에서의 둔감

도시에서의 둔감 1/143

도시에서의 둔감 2/145

도시에서의 둔감 3/146

도시에서의 둔감 4/147

도시에서의 둔감 5/149

도시에서의 둔감 6/151

도시에서의 둔감 7/152

도시에서의 둔감 8/154

도시에서의 둔감 9/156

도시에서의 둔감 10/158

도시에서의 둔감 11/160

도시에서의 둔감	12/162
도시에서의 둔감	13/165
도시에서의 둔감	14/167
도시에서의 둔감	15/169
도시에서의 둔감	16/171
도시에서의 둔감	17/173
도시에서의 둔감	18/175
도시에서의 둔감	19/177
도시에서의 둔감	20/179
도시에서의 둔감	2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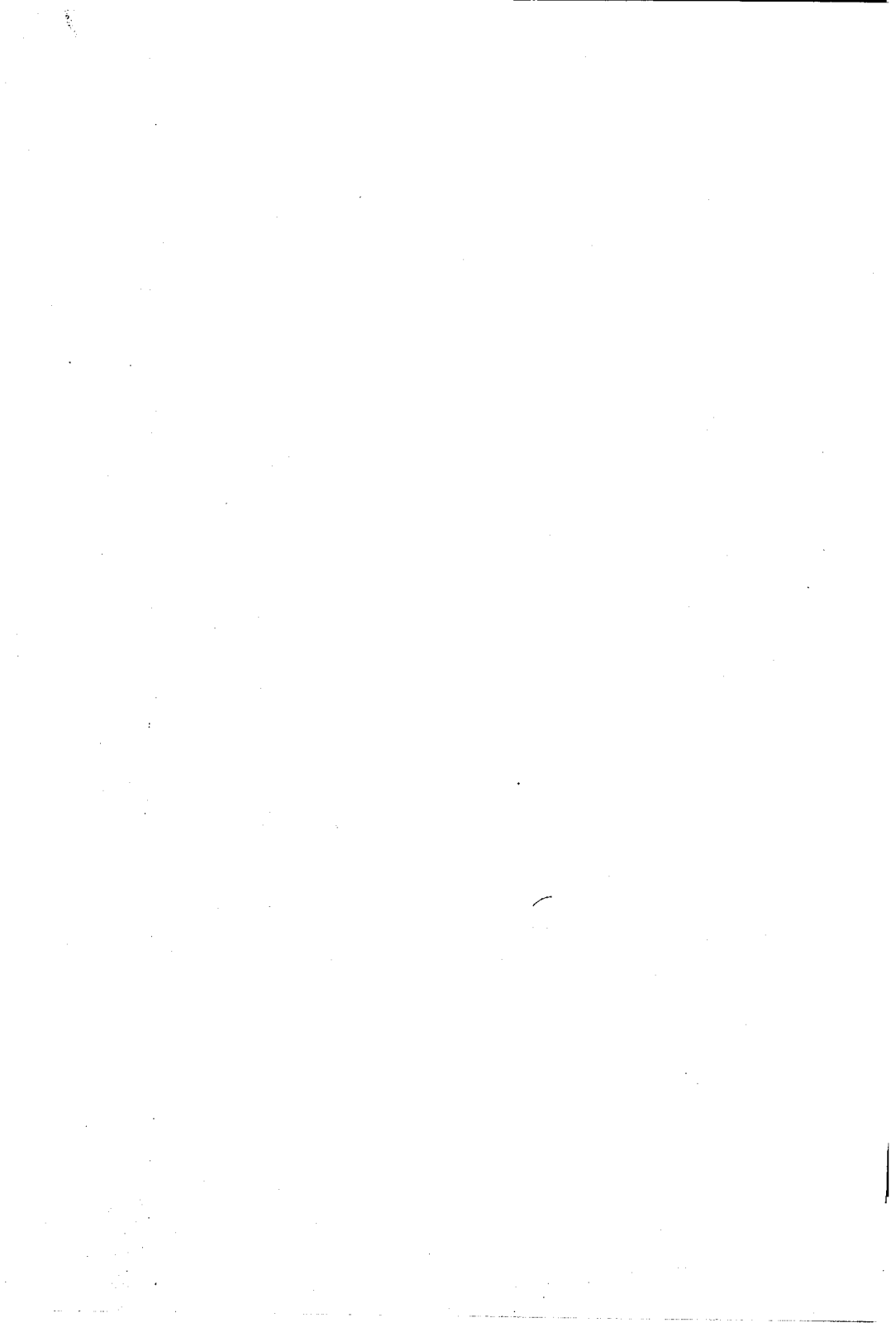
제6부 동으로 흐르는 강

진달래/185
아리랑/187
우리에게 먼 옛날이 있다면/188
겨울밤/190
고전으로 가는 길/192
해란강/194
바람/196
동으로 흐르는 강/205

후기/217

제 부

밤은 고요히 흘러가는데



밤은 고요히 흘러가는데

밤은 고요히 흘러가는데
나는 어디에 머물고있을가

밤은 래일의 풍경을 바라고
내쳐 흘러가기만 하는데
머리말도 없는 이야기는
깨끗이 버려야 함이 아닐가

마음과 창문을 스미는 랭기가
파아란 담배불연기를 이끌고
천정 언저리에 길게 맴돌다가
흘어져 조용히 사라지는 밤

종이로 접은 새의
마른 울음이라 할지라도
피를 쏟아 울어야 함이다
무형의 장벽을 뛰어넘어
가야 함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비가 내리는 밤이면
곤혹이 길게 질척이고
탁상등 희미한 불빛이
귀신불 옛말을 한다

나를 지키는 신령은
어디로 가고 없고
홀로 빛나는 그리움은
나설 터마져 없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밤이면
아름다운 시 한수로
추위에 젖는 정서를
말끔히 건조시켜야 한다

불타는 눈길로
캄캄한 허공 어딘가에
밝은 아침해가 태어나는